

다산포럼



김세종
다산연구소장

세종대왕의 악명(樂名)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악명하면 음악 이름인데, 이것이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인지 생소할 것 같다. 그런데 옛 제왕의 음악은 '정치 행위'라는 말이 있다. 성인은 예악(禮樂)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의(仁義)로써 백성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는 예로써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고 음악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옛사람들은 예(禮)는 사회 질서를 보전하여 일상생활을 바르게 실행하기 위한 규칙이고, 악(樂)은 민심을 화합하게 하기 위한 음악이며, 형(刑)은 악을 방지하기 위한 형벌이고, 정(政)은 행정상의 모든 기관을 가리킨 것이라 하여,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을 하나의 덕목으로 여겼다. 따라서 선왕이 예악을 제정함은 삼대(三代, 하-은-주)의

음악과 정치

태평성대를 본뜬 것이고, 그 음악은, 문덕과 무덕을 겸비하여 세상을 어떻게 밝게 빛냈으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되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공업(功業)을 이루면 음악을 마련하여 대대로 자기 그 명칭이 있었습니다. 삼가 역대(歷代)를 상고해 보면 대, 당(唐)나라 요제(堯帝)는 대함(大咸)과 대장(大章)이요, 우(虞)나라 순제(舜帝)는 대소(大韶)요, 상(商)나라 탕왕(湯王)은 대호(大濩)요,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대무(大武)였으며, 근대(近代)에 내려와서 송(宋)나라는 대성(大晟)이라 하고, 금(金)나라는 대화(大和)라 하고, 원(元)나라는 대성(大成)이라 하여 모두 그 이름이 있는데도, 우리 조정에서는 홀로 음악 이름(樂名)이 없으니 옛날과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음악의 이름을 '균화(鈞和)라고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군(大鈞)은 하늘이니, 만민(萬民)을 교화(教化)시키는 시기는 대군이 만물에게 베풀었음과 같으며, 대악(大樂)은 천지(天地)와 더불어 화합(和合)하게 되니, 이 뜻을 취(取)하여 이름을 삼은 것이었다" 하였다. (세종 28년 2월 6일)

이는 우리 조정의 음악을 균화(鈞和)라 할 것을 예조의 정문(正文: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보내던 공문서)에 의거하여 의정부에서 아린 것으로, 그간의 세종대왕이 일군 예악 정치를 한마디로 평가한 음악 이름이다. 평소 세종대왕은 음악을 세우는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과도 같아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음악을 통치의 한 부분으로 여겨, 일찍이 '오례의'를 제정하고 음악 정비에 온 힘을 쏟았다.
'한 나라의 왕이 음악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음악이 심성을 바르게 하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작에서는 "음악으로 민심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음악 정책은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음악이란 성인이 즐거움을 얻는 수단이며, 민심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논어 양화편) 다산 또한 음악의 중요성을, "예악(禮樂)은 잠깐 동안이라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음악이 흥작(興作)되지 않으면 교화(教化)도 끝내 시행할 수 없고 풍속도 끝내 변화시킬 수 없어서 천지의 화기(和氣)를 끝내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NGO칼럼

광주 도시 계획의 현주소, 북부순환도로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고을로에서 일곱 지구까지 2공구 공사는 보란 설계 중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는 2008년 계획 당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주민들은 우회 구간을 통해 시민의 편의도 챙기고 주민 피해를 해소하며 환경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광주시에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이런 주민들의 노력으로 2013년 광주시는 한새봉을 뚫지 않고 터널 대신 우회 도로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광주시가 그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부순환도로가 관통하는 한새봉은 무등산에서 군왕봉, 운암산, 한새봉, 매곡산으로 이어지는 광주 북부권의 주요 생태축이다. 한새봉은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인 삶과 수달, 하늘다람쥐가 살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 원앙 등이 찾아오는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생태 공간이다. 또한 하루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찾아오는 근린 공원이자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생태 학습장이기도 하다.
도로로 인해 숲의 환경은 변화를 피할 수 없고, 훼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시 안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자연은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지속 가능한 발전(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지금 당장의 편의와 이용만을 위해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발의 전제 조건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전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10년 전 계획했던 도로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계획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10년 동안 변화된 도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

광주시가 지향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 속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광주시가 지향하는 미래 도시의 비전과 방향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숲이나 도로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숲을 살리면서 시민 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를 기능성과 편리성만을 강조해 바라봤던 그동안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본 조건이 되는 도시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차원에서 도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도시 숲이 사라지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광주시의 행정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숲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도로 공사는 속도와 편리를 이유로 모른 척 눈감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일이다.
개발 사업이 도시의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고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성만을 중요시해 온 그동안의 개발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북부순환도로, 광주시 도시 계획의 철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기고

면세점이 전부가 아니다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광주시가 시내 면세점 유치에 나섰지만 지원 기업이 없어 결국 무산됐다. 수년간 공을 들인 광주로서는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여서 아쉬운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 신청했을 뿐이다.
문제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이다. 한때 시내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016년 864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사드 사태 이후 2017년 400만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464만 명에 그쳤다. 급감한 단

회한 전략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면세점은 전통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이다.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면세점 쇼핑을 유도하고, 면세점은 그 구매 액수에 비례해 일종의 리베이트인 송금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수수료는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할 인센티브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80%는 개별 여행객일 정도로 최근 관광 시장은 단체 관광에서 개별 여행객(FIT)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면세점을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전략이며, 부분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면세점이 없어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단체 관광객에 국한된 것이다. 시장은 늘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여 관광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5만 명, 이 가운데 중국 관광객은 5만 명 남짓이다. 면세점이 입점하려면 중국 관광객이 최소 연간 200만 명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감안하면, 광주는 당분간 관광

객 수 즉 시장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개별 여행사 장이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자 돌아꾸를 열수 있다는 말이다. 20~30대 젊은 개별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여행하기 편리한 인프라를 갖춰 이들을 유치하는데 마케팅을 집중해야 한다. 개별 여행객이 먼저 길을 열고, 입소문이 나면 단체 관광객이 뒤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광주는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호텔이나 인프라, 관광 상품이 여전히 부족한 후발 주자지만, 다행히 젊은 개별 여행객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와 인프라는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수많은 예술가와 문화 예술 공간, 프리지페스티벌과 세계청년축제 등 매력적인 축제와 공연, 매력적인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최근 문화 도시에 걸맞게 '예술 여행 도시, 광주'를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내세워 젊은 개별 여행객 시장, 공정 여행 시장을 공략하려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

社說

40년 다 되도록 가지지 않는 5·18 트라우마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이후 고문 후유증 등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민이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당수 생존자들이 항쟁 이후 40년이 다 되도록 '국가 폭력'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명희 경상대학교 교수는 엇그제 광주에서 열린 5·18 학술대회에서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980년 이후 올 10월까지 5·18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46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파악한 5·18 참가 이후 자살자 수는 1980년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시기에는 광주 시민이 즐거움을 얻는 수단이며, 민심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논어 양화편) 다산 또한 음악의 중요성을, "예악(禮樂)은 잠깐 동안이라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음악이 흥작(興作)되지 않으면 교화(教化)도 끝내 시행할 수 없고 풍속도 끝내 변화시킬 수 없어서 천지의 화기(和氣)를 끝내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990년대에는 네 명으로 감소했지만, 2000년대에는 13명으로 자살 빈도가 다시 높아졌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꼽았다. 대부분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기 위해 알코올에 의존하다 대인 관계 실패, 가정 문제, 실직, 빈곤을 겪었다는 것이다.
2010년대에는 올 8월 5·18 왜곡에 힘들이려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정철 씨 등 네 명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겪었던 고통이 제2세대와 유가족의 피해로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감안해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시적 금전 보상의 미봉책에서 벗어나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적극적인 치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5·18을 폄하하는 거짓 주장이 난무하고 가해자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현실은 피해자들을 다시 당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만큼, 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수돗물에 이물질' 정확한 원인부터 밝혀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14일 광주 북구 문흥동 지역에서 흙이나 물때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가정과 학교에 공급됐다. 지난 7일 남구 주월·월산동 및 서구 화정·염주동 일원에 수도관 코팅막 가루 등이 포함된 수돗물이 공급된 지 정확히 1주일 만이다.
광주시 상수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인 15일 오전까지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온다는 주민 불편 신고가 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민원은 문흥동 광명아파트와 인근 학교 및 화항동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이 지역 아파트 1500여 세대와 학교 내 곳에 탁한 수돗물이 공급된 것이다. 북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누수 시험을 하던 중 이물질이 발생한 수돗물이 흘러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주일 전 남구·서구의 수돗물 이물질

유입 사고는 백운동 일대 수도관의 노후와 함께 주변 하수도 매설공사에 따른 공사 진동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도관 노화로 수도관 내부를 감싼 코팅막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공사장 진동이 맞물리면서 코팅막 가루와 물때가 섞인 채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 또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노후 수도관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 외곽 택지지구로 연결된 상수도관은 모두 20~3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수도본부 측은 지난해 사고 브리핑에서 "추후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번 사고 원인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생명수나 다름없다. 사고 원인부터 밝혀내고, 만약 노후 수도관 때문이라면 교체 예산 확보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꽃다운 소녀 시절엔 꿈이 있었다. 하지만 가난해서, 또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 때부터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엄마 노릇'을 해야 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또래 친구들이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러웠다. 그렇게 꿈을 펼쳐 보지 못했고, 평생 수 배운 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았다.
소녀들은 할머니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순천시 '시립 그림책 도서관'에서다. 기억, 니 글은, 다름, 리움... 글은 자세의 이름과 주소를 직접 쓸 수 있게 됐다. "구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초등학생이 되어 날마다 숙제하고 구구단을 외우느라 바쁩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적을 수 있게 됐다.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자녀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쓰고 읽으면서 함께 웃었다. 83세에 '성인 문해 골든벨'에 참가해 우승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할머니도

있다.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 그림도 배웠다. 그리고 3년 후. 살아 온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 지난 2월 그림 일기를 펴냈다. 할머니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책 제목은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남해의 불날')이다.
순천 '할매 작가' 20명의 글뿐만 아니라 그림을 원화(原畵)로 볼 수 있는 '인생을 담은 그림책' 전시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 할머니 작가들은 가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픈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글과 그림 속에 풀어냈는데, 이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 세대'의 자화상일 것이다.
할머니들은 '공부가 큰 선물'이었다며 '앞으로의 소원도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들의 글과 그림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전시를 본 초등학생들도 '예쁘고 꽃같아. 건강하세요' 등의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잠시 짬을 내 '마음만은 꽃다운 소녀'인 할매 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겠다. 전시는 12월 1일까지.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명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